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오 상 학*

The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of Mt. Hallasan in Joseon Dynasty

Sang-Hak Oh*

요약 : 조선시대의 한라산은 순상화산이라는 형태로 인해 두무악, 원산, 부악 등으로 불렸다. 신선사상과 관련해서는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으로 불렸으며 아울러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산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라산의 자연 경관으로는 백록담 상봉과 주변의 측화산(오름)들이 유기적으로 인식되어 여러 지도에서 표현되었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식생들도 중요한 경관으로 인식되었으며 동서 사면으로 길게 이어진 숲 지대는 일부 지도에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라산의 인문경관으로는 중산간 지대에 펼쳐져 있는 목마장이 대표적이다. 한라산 둘레에 형성된 목마장이 대부분의 지도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일부 지도에는 목마장의 부대시설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역사유적으로 일부의 사찰과 군사, 제사 유적 등이 중요한 경관으로 인식되어 지도에 표현되기도 했다.

주요어 : 한라산, 영주산, 측화산, 식생, 목마장

Abstract : Mt. Hallasan in Joseon Dynasty was named in terms of physical appearance. Also it was called Youngjusan(瀛洲山) which is one of Samsinsan(三神山) and were perceived mountain to see Noinseong(the south pole star, 老人星). The main peak and adventive cones were perceived organically and were represented in several maps. The vegetation was perceived as important landscape. In addition the pastures established around Mt. Hallasan were recognized as a major human landscape and were represented in maps. In some maps subsidiary facilities of the pastures were depicted closely. Such historical relics as temples, altars were often represented in maps.

Key Words : Mt. Hallasan, Youngjusan(瀛洲山), adventive cones, vegetation, pastures

文 獻

강정호, 2003, 한라산, 돌베개.

김찬흠 외, 2002, 역주 탐라지, 도서출판 푸른역사.

남도영, 1996,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도도로키 히로시, 2005, “조선시대 읍치의 영역성에 관한 일고찰 - 경상도를 사례로,” 지리학연구 39(1): 95-120.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탐라문헌집.

제주문화방송, 1994, 속탐라록, 제주.

제주문화원, 1997, 知瀛錄.

_____, 2000, 옛사람들의 등한라산기, 나라출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제주의 옛지도.

제주시, 1994, 탐라순력도, 제주시 영인본.

제민일보곶자왈특별취재반, 2004, 제주의 허파 곶자왈, 도서출판 아트21.

葵窓集, 李健.

南溟小乘, 林悌.

南海錄, 金尙憲.

南遷錄, 金聲久.

大東地志, 金正浩,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新增東國輿地勝覽,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濟州郡邑誌,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83).

濟州風土錄, 金淨.

朝鮮王朝實錄.

增補耽羅誌, 日本天理大 소장본.

芝峰類說, 李叩光.

耽羅紀年, 金錫翼(1918).

耽羅錄, 李源祚,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영인본.

耽羅志, 李元鎭,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耽羅誌草本, 李源祚,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영인본.